

마스터플랜 따라 대운동장 좌우에 학생회관과 경영관 건립



1971년 완공된 학생회관(왼쪽)은 늘씬한 기둥열이 건물 네 면을 둘러싸면서 만든 둥근 아치로 여성적 곡선미를 드러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2년 완공된 상과대학 종합교사(오른쪽)는 수직 기둥에 의한 직선적 격자와 건물 양쪽 모서리 부위 및 측면의 거친 석재마감으로 남성적 기조를 보여준다.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II

모더니즘 건축물이 석조고딕 캠퍼스에 들어서는 방식: 학생회관과 상과대학 종합교사(현 경영관)

학생회관 건립은 학생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군데 흩어져있던 식당, 이발소, 서점 등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세미나실과 동아리방 등 학생 자치공간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학과와 더불어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과대학 역시 1964년 개원한 경영대학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교사 건립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과 이정덕 교수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입안됐으며, 따라서 두 건물은 그 마스터플랜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거꾸로 보면 이들이 캠퍼스 전체 계획의 필요성을 추동한 셈인데, 사실상 두 프로젝트와 마스터플랜은 동시에 진행됐다고 하겠다.

지난 호에 서술했던 마스터플랜의 '대상용지계획(帶狀用地計劃)'을 상기해보자. 대운동장 서편의 학생회관은 소음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도로변의 '과외활동 시설 지역'에, 그리고 동편의 상과대학은 한 단계 안쪽의 '교육 및 행정시설 지역'에 위치하도록 제안됐었다. 또한 각 건물의 앞에 조성된 광장은 대운동장을 건너 서로 대응한다. 학생회관은 도로를 등지고 광장을 북서쪽으로 면하는데, '민주광장'으로 명명된 이 오픈스페이스의 나머지 세 면은 교양관, 홍보관, 그리고 대강당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상과대학은 캠퍼스 동편의 텅 빈 공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운동장을 바라보는 배치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앞의 광장 역시 대운동장을 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건물의 배치 및

좌향(坐向) 못지않게 두 건물의 대조적인 조형 특성이 흥미롭다. 이정덕 교수는 이를 여성적 곡선미와 남성적 직선미로 나누어 설명했다. "학생회관은 사랑방의 기능을 가졌고, 따라서 길가에 나와 앉아 있으며 그 디자인의 주조는 여성적 감미로운 곡선임에 비해 이 상대교사는 그 위치가 대응되는 곳에 있고 용도도 대조되므로 남성적 직선을 주조로 하였다. 아폴로 발사시의 날쌔 직선적 궤적을 기둥 조형의 모티브(motif)로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정덕, 『新築 商大綜合校舍』, 《高대新聞》, 1972.5.23)

여성적 곡선미의 학생회관

학생회관(1970~71)에서는 일련의 늘씬한 기둥열이 건물 네 면을 둘러싼 모습이 인상적인데, 이정덕 교수가 설명하는 '여성적 감미로운 곡선'은 기둥 상단의 반복되는 아치가 만들어내는 효과다. 이러한 입면은 (비록 뾰족 아치가 아닌 둥근 아치를 도입했지만) 고딕 성당의 실내외를 뒤집으며 현대적으로 변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딕의 높고 가는 기둥과 천정에

서 갈라지는 궁륭(穹窿, vault)의 뼈대가 여기서 단순미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둥열 부분과 최고층 부분이 고딕성당 내부의 아케이드와 갤러리 층마저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매우 흡사한 구성을 보이는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스관(1965)을 참조했던 게 아닐까 싶다. 이 건물은 일본계 미국인 건축가인 미노루 야마사키(1912~86)가 디자인했는데(모더니즘 건축의 죽음을 상징하며 폭파된 '프루트이고 아파트'와 9.11 테러의 대상이었던 '세계무역센터'를 설계한 이가 바로 이 '비운의 건축가' 야마사키다). 그의 작품은 모던 건축에 고딕적 이미지를 가미했다는 평을 받는다.

프린스턴의 고딕풍 모티브에 경의를 표한 현대식 로버트스관은 유사한 콘텍스트의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을 고무하기 충분했을 테다. 한편, 학생회관의 널찍한 계단과 오픈 데크는 마주보는 민주광장의 집회를 위한 옥외 무대로 디자인됐다.



이정덕 교수가 학생회관을 구상하면서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린스턴 대학 로버트스관(1965). 이 건물은 9.11테러의 대상이었던 세계무역센터를 설계한 '비운의 건축가' 미노루 야마사키의 작품이다.



학생회관과 상과대 종합교사는 2000년대에 변형의 계기를 맞는다.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수선을 한 현 학생회관(위)은 건물 미관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유리상자를 이고 있고, 리모델링한 현 경영대학 본관(아래)은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났지만, 애초에 선보였던 직선적 조형미는 약화됐다.

남성적 직선미의 상과대학

상과대학 종합교사(1970~72)는 입면에 수직 기둥이 반복되는 점에서 학생회관과 유사하나 곡선적 요소가 부재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3층부터 기둥이 앞으로 점점 폭을 더해 가는데, 이정덕은 이 같은 특징을 "날쌔 직선적 궤적"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상과대학에서 더 중요한 바는 건물 양쪽 모서리 부위와 측면을 거친 석재로 마감한 사실이다. 이것이 야말로 학생회관의 여성적 우아함과 대비되는 남성적 기조이며, 인접한 도서관 및 석조 건축물들에 최소한의 예를 갖춘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박동진이 여학생회관(1958; 본보 2015년 1월호, 연재물 9회분 참조)에서 이미 시도했었는데, 앞으로의 신축 건물도 빈번히 도입할 외장 유형이다. 결국 학생회관과 상과대학은

모더니즘 건축물이 석조고딕 캠퍼스에 들어서는 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두 건물은 2000년대 들어서며 변형의 계기를 맞는다. 학생회관은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내부를 수선하며 로비가 협소해졌고, 옥상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유리상자를 이게 됐다. 현재의 경영대학 본관인 상과대학 교사도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났지만, 이정덕이 애초에 선보였던 기둥의 직선적 조형미는 아쉽게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